

# 여수시, '도심순환 2층버스' 5월부터 운행

### 관광객 1000만시대 차별화된 패키지 상품 개발

### 엑스포역~오동도~이순신광장~돌산공원 경유

미국과 유럽 등지 관광도시에서 주로 볼 수 있는 2층 버스가 '세계 4대 미항' 여수에서 운행된다.

여수시는 7일 "관광객 1000만평 시대를 맞아 돌산공원과 오동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와 도심 주요 관광지까지 오가는 '도심순환 2층 버스'를 오는 5월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을 확정, 6000만원을 투입해 조만간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천장 개방형(오픈탑) 2층 버스 1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운행노선은 여수엑스포역을 출발해 아쿠아리움, 오동도, 하멜기념관,

이순신광장(진남관), 여객선터미널(수산시장) 등을 경유하고 해상케이블카 도착지점인 돌산공원에 도착해 여수엑스포역으로 복귀하는 14.2km 코스로 구성되며, 50분 정도 소요된다.

오전 9시부터 하루 8차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운행요금은 1회 3000원, 종일권은 5000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운행하고 있는 여수 시티투어가 지난해 2만 5000여명의 탑승객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면서 이와 연계한 탑승형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해왔다.

도심순환 2층 버스 운행에 맞춰 기존 시티투어 코스에 대해 중복되는 도심 경유지를 제외해 운영하고 운행횟수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티투어 운영업체와 맺은 기존 협약을 변경하고 항일암·역사유적코스를 운영하는 시티투어 코스에 대해 기존 7시간20분 간격으로 한 차례 운행하던 것을 3시간 40분 간격으로 두 차례 운행기로 했

다.

시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여수의 새로운 랜드마크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도심순환 2층 버스를 활용한 차별화 된 관광패키지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2층 버스는 도심관광의 명물로 떠오르며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여수박람회 기간 무료시내버스 지원 논란

### 감사원 "여수시, 과다지급 3억여원 환수방안 마련하라"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린 3개월 간 여수시 지원 하에 운행됐던 무료시내버스에 대해 뒤늦은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여수시민회의회의 청구로 감사에 착수해 시내버스 회사별로 환수 금액을 확정해 그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7일 "감사원이 박람회 기간 결핵 차량 및 과다 지급 추정액에 대해 시내버스 회사별로 환수 금액을 협의·확정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난달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사기간 8일 동안 결핵 손실액이 3100만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정, 박람회 기간 과다지급 추정액은 3억2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박람회 당시 복잡한 교통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무료운영 정책은 박람회 기간 시내권 교통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 정부통계에 따라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며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 수치를 납수를 골해 일괄 산출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여수경찰서 박준 사무국장은 "박람회 기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감사원 조사결과에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모두 77억8천만원을 들여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행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S-트레인' 관광객 위한 광역 순환버스 운행 재개

전라남도는 7일 "남도해양관광열차(S-트레인)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남도의 자연경관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운행하고 있는 광역 순환버스가 지난 4일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광역 순환버스는 S-트레인을 비롯해 열차를 타고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남도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머무르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순천역을 기점으로 순천, 보성, 장흥의 대표 관광지를 순회 운행하는 버스다. 지난해 11월23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나 며칠 뒤 철도노조 파업으로 S-트레인과 일부 KTX 등의 운행이 중지되자 순환버스 운행도 일시 중단됐다.

S-트레인은 코레일에서 2013년 9월27일 개통해 부산~순천~여수엑스포 간, 오는 11월부터는 서대전~순천~광주 송정 구간을 하루 1회씩 왕복 운행하는 열차다.

/장필수기자 bungy@



농가 고소득 각광 보성 봉천 메주

지난 6일 보성군 북내면 봉천마을 주민이 직접 콩을 삶아 만든 메주를 손질하고 있다. 봉천마을은 주민 출자방식으로 메주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7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보성군 제공>

#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 광양시-구례군, 공동 건의문 채택

전남 광양시와 구례군이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광양시와 구례군은 7일 광양시청에서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무총리실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웅 광양시장, 서기동 구례군수, 이정동 광양시의회의장, 김성현 구례군의회의장, 정용성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백운산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부터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원으로 관리·운영하다가 해방 후에는

미군정정이 서울대에 80년간 대부(2026년 종료)해 현재까지 학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광양시민과 구례군민들은 지난 2012년 5월에도 "지난 2010년 12월27일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서울대가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백운산을 무상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서울대 법원에 무상 양도할 수 없으므로 국가 소유인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광양시와 구례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백운산이 이른 시일 안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광양=박정희기자 pyj4079@

# 전북

# 전주 도심 꽃단장 꽃 향기 넘쳐난다

### 시, 한옥마을 등 10곳에 '아트가든' 조성

전주시는 올해 도심 거리를 꽃의 향기와 색으로 물들이는 '아트 가든(Art Garden)'을 조성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도심에 식재할 꽃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전주시 호동골 양묘장에서는 올해 팬지, 패랭이꽃, 국화 등 30여종 190만본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만여본 늘어난 수치로, 시는 생산된 꽃을 연중 시기에 맞춰 5차례 거리 단장에 나설 방침이다.

꽃 색깔과 질감이 독특한 백묘국, 산파첸스 등 새롭게 선보이는 꽃을 이용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심속 '아트 가든'으로 꾸민다는 것이다.

시는 전통문화 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꽃 생산

과 식재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아트 가든 조성 대상은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지문화축제가 열리는 경기전 앞, 오거리문화광장, 전주역광장, 영화의거리 등 10여개소.

이곳에는 토파리 등 특색 있는 꽃 시설물과 다양한 꽃을 식재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관광객에게는 추억 남기기 장소로 단장한다.

또 태조로, 팔달로, 충정로 등 도심 주요 가로변에 배치돼 있는 1450여개의 대형화분에는 늘어지는 꽃과 수직적인 꽃을 함께 심어 입체적이고 색감 있는 거리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전주시가 올해 한옥마을, 경기전 앞 등 주요 거점과 도로에 아트가든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진은 아트가든 주요 사례.

# 단신

## 남원시 감사계획·결과 홈페이지 공개

남원시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자체 감사 계획 및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자체감사 계획은 감사사항,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범위 등을 사전공개하고, 감사 결과는 수감기관별로 감사기간, 지적사항, 처분내용, 우수사례 등을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결과 공개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 고창 석교리 백석마을 회관 준공

고창을 석교리 백석마을 회관 준공식이 7일 이강수 고창군수, 조재길 고창읍장, 임한조 추진위원장, 유덕근 고창농협장을 비롯하여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김중민 자치회장은 마을회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

해 준 이강수 군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이어 현판식이 진행됐다.

마을회관은 고창읍 석교리 현대아파트 놀이터 부지에 총사업비 5500만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69㎡ 규모로 신축했으며, 방, 주방, 거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이 마련됐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내달 19일 이전 오픈

정읍시립도서관이 '정읍시립중앙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오는 2월 19일 자리를 옮겨 개관한다.

내장상동 옛 상동정수장 부지에 새롭게 들어선 시립중앙도서관은 국비 27억여원을 비롯 도·시비 등 모두 80억원이 투입됐고, 총면적 3500㎡ 지상 4층 규모다.

도서관 1층에는 강당과 어린이시설, 다문화교실 등을 비롯하여 2층에는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정기간행물실, 3층에는 열람실, 노트북실, 휴게실 등, 4층에는 사무실과 보존 서고실, 도서정리실, 문화교실 등이 들어선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 올해 280억 투자

전북도가 추진하는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확충 사업이 올해도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7일 도에 따르면 2017년 완공 목표로 지난해 시작한 면 단위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확충 사업에 올해도 280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11개 시·군

14개 지구의 상수도 관로 95km를 개설하고 배수지 1개소를 조성해 해당 지역주민 4870여명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공사가 끝나는 올해 말이면 면 단위 상수도 보급률은 73.9%에서 75%로 상승하게 된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시, 흰찰쌀보리 소비 촉진 나서

### 브랜드 개발 상표 등록...골목빵집 살리기도

군산시가 지역특산물인 흰찰쌀보리의 소비 촉진과 골목 빵집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산시는 7일 "흰찰쌀보리빵 제과제빵업소 21곳에 전문점 지정서를 주고 골목 빵집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군산 흰찰쌀보리빵 '보리진포' 브랜드를 개발, 상표 등록을 마쳤다.

군산시는 업체들과 함께 '보리진포' 브랜드 관리, 제품 다양화, 품질 표준화, 위생, 서비스 향상을 힘쓰기로 했다.

'보리진포' 전문점 입구에는 홍보

간판과 지정점 현관이 설치된다.

지역축제 행사장에는 흰찰쌀보리빵 무료시식과 '보리진포' 페스티벌 등 다양한 홍보도 펼쳐진다.

군산시는 연 2회 현장실사를 해서 위생, 위생, 고음, 매출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점을 3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종원 군산농업기술센터 과장은 "흰찰쌀보리빵 전문점을 통해 소비 안정화는 물론 군산시 홍보, 동네 빵집 경쟁력 향상 등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 연 500만명 찾는 전주 한옥마을 경제파급 효과

# 직·간접 3천억 넘는다

전주 한옥마을에 지난해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주시가 전주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한옥마을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간접효과는 2680억원, 직접효과는 46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들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조사한 간접효과(2008~2013년)는 생산유발 1424

억원, 소득유발 292억원, 부가가치 유발 718억원, 순 간접세 유발 71억, 수입유발 175억원 등 총 2680억8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한옥마을 입점 상가 305개를 대상으로 한 직접효과분석에서는 지난해 상가 전체 매출액 추정액이 458억6000여만원으로 업소당 연간 매출액은 1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상가의 업소당 평일 평균

매출액은 27만6천758원, 주말·휴일 평균 매출액은 64만189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옥마을 내 상가들의 직접 고용인원은 현재 75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인근 동문 상가와 남부시장 등을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옥마을로 발생하는 간접효과는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덧붙였다.

한옥마을 집계를 시작한 2002년 31만여명에 불과했으나 2006년 100만여명, 2010년 350만여명, 2012년 493만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500만명을 돌파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